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 성 중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농어촌 전도대 내일부터 파송

1, 2차로 나누어 12개 지역으로 지역 복음화에 일익 담당 기대

92년도 하기 농어촌 전도대가
내일부터(8월 3일)부터 파송된
다.

두 차례에 걸쳐 파송되는 이
전도대는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
(위원장 최상규 장로)의 지시를
받아 전국 지교회 소개지를 중심
으로, 1차는 8월 3일부터 7일까
지, 그리고 2차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군데로 파송되게 된

다.

민족 복음화 차원과 앞으로 통
일된 조국의 광역 복음화를 주 목
적으로 실시되는 하기 농어촌 전
도대는 남녀전도회와 청년부 회
원을 중심으로 전도대가 구성되
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임지로
떠나게 된다.

파송 지역은 재현교회를 비롯
하여 북쌍교회, 부현교회, 대신교

회, 천곡교회, 신현교회, 서현교
회, 용산교회, 미산교회이며 부
산, 마산, 춘천교도소에도 전도대
를 파송할 예정이다.

이들의 맡김이 지역 복음화
에 일익을 담당하며, 하나님께 영
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92 세계성령화대성회 개최

8월 15일, 16일 여의도광장에서 주제는 “성령으로 세계를 ”

한국 교회는 다가오는 21세기
를 초교파적으로 예비하기 위하
여 오는 8월 15일과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성령으로 세계를!” 이
라는 주제 아래 '92 세계 성령화
대성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우리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명예총재직을 맡고 있는 '92 세
계 성령화 대성회 주관으로 열리
는 이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 인간화, 성령으로

복음 혁명화, 북방 선교로 복음
세계화”라는 강령과 “성령을 받았
느냐(행19:2), 성령의 충만을 받
으라(엡5:18), 성령의 약속을 받
으라(갈3:14), 성령을 좇아 행하
라(갈5:16)”라는 표어 아래 세계
교회에 있어서 성령 운동의 주도
적 위치를 확인하며 54억 세계인
을 복음화하기 위한 성령 운동을
세계로 확산하는 성회가 될 것이
다.

◆ 집회 안내

일 시	집 회	장 소
8월 13일 오후 6시 30분	전야제	여의도순복음교회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개회 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오후 7시	첫째날 성회	
오후 11시	철야 기도 성회	
8월 15일 오후 2시	찬양과 기도	여의도광장
오후 3시	둘째날 성회	
8월 16일 오후 2시	찬양과 기도	여의도광장
오후 3시	셋째날 성회	

권사회 여름 수양회 개최

8월 10일과 11일에

권사회(회장 전순자 권사)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신앙 훈련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오는 8월 10
일과 11일 갈릴리홀에서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중 목사
를 강사로 모시고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수양회는 “말씀과 생활”이

라는 주제 아래 하루 밤을 교회에
서 묵으면서 영적 훈련과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충현의 모든 권사들은 이에 적
극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
신 은혜의 축복을 받아누릴 수 있
기를 주축측은 바라고 있다.

제4차 세례식 거행

92년도 제4차 세례식이 지난
7월 24일 갈릴리홀에서 거행되었
다.

김창인 목사, 윤용규 목사, 최
인근 목사, 김창수 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이번 세례식에서 127명이
학습을, 127명이 세례를, 3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39명이 입
교하고, 1명이 개종하였다.

충현프리즘

◎...지난 주일(7
월 26일) 저녁 찬양예
배시 있었던 이재혁군
의 피아노 연주는 우
리의 심금을 울렸다.

시각 장애자인 이
재혁군이 친척의 도움
으로 피아노 건반에
앉을 때까지도 그의
연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의 살
아 계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
의 손길은 빈틈없는
유연성과 화음이 최고
조에 달하는 앙상블이
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에 그리어볼 때 하늘
의 별 울려 퍼지는 너
성 주님의 권능 우주
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찬송가 40
장)

이 곡을 연주할 때
는 하늘 나라의 오묘
한 신비를 찬양하듯
우리들의 심령을 감동
시켰고 많은 지체 부
자유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 넣
어주었다. 비록 앞을
못보는 젊은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하는 그 열정은 그 누
구보다고 컸고, 기도
하며 피땀 흘려 연습
한 그의 피아노 연주
기법은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는 영광을 유감
없이 입증하기도 했
다.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출석하며, 말씀을 들
고, 예수님의 제자되
기를 훈련받는 한, 본
인에게는 새로운 격려
가 될 것이며, 그리고
충현교회 미래의 새로
운 지도자로 키워진다
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 없게
된다.

◎...본 교회의 지
정된 게시판에 붙일
안내 홍보 벽보가 실
시 일정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붙어
있다.

행사를 알리는 각
부서는 벽보 붙이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나면 그 벽
보를 자진 철거하는
봉사 정신도 있어야
하겠다.

본당 앞에 게시된
모 기독교 기관의 행
사 내용도 그 행사가
지난 지가 2주일이 되
었는데 철거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
을까?

교회학교 부서별 수양회 안내

대부분의 교회학교 부서가 여
름 수양회 및 계절학교를 개최하
여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해이해졌던 믿음의 허
리끈을 다시 동여댔다. 그리고 하
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도 다짐하였다.

한편 앞으로 수양회를 계획하
고 있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데,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
록 기도 지원이 있어야 겠다.

◆ 장년4부

· 8월 13일, 14일

· 충현교회

◆ 장년2부

· 8월 14일, 15일

· 충현기도원

◆ 예배다부(성인반)

· 8월 14일, 15일

· 충현기도원

◆ 영어교육부

· 8월 15일

· 종교수양관

◆ 소망부

· 8월 20일, 21일

· 갈릴리홀

직 원 모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
회에서 헌신, 봉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직종 : 비디오 촬영, 편집
- 제출서류 : 이력서
- 당회장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제출처 : 음영실

기도원 정기 집회

· 새벽 5시

월요일~토요일

· 오전 11시

월요일~금요일

· 오후 8시 30분

월요일~금요일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하나님의 자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마5:33~48)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맹세 문제와 복수 문제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1. 맹세 문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맹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이나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맹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다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자기들의 거짓된 것을 감추려고 일부러 거짓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맹세를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목회자가 될 때도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맹세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맹세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성전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마 26:72)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계집종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맹세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맹세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헛기를 쓰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당시 뺨을 칠 때 손바닥으로 치지 않고 손등으로 치면 최고의 모독입니다. 이럴 때 보복을 하지 말고 성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5:40)

여기에 속옷과 겉옷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겉옷은 이불대용인데 누군가가 우리의 속옷을 가지려고 할 때 넉넉하게 겉옷까지도 다 주라는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마5:41)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로마의 법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이나 식민지에서 잡은 사람들에게 오리를 가라고 한다면 그 오리까지는 돈을 주지 않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짐을 운반하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십리라도 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5:42)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44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원수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최근에 바다철학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보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점에 고기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고기로 비유할 때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성격이나 취미에 관계 없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충현의 성도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수해주시고 해결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곧 사랑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악을 선으로 갚는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생활 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 가면 증인들을 세워 놓고 성경에 손을 얹고 오직 진실만 말하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는 케이커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를 흔히 케이커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들은 농사 짓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재판장에 가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판장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맹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마5:34, 35)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커교도들의 그 맹세가 옳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맹세가 나오고,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 23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의 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맹세가 나오고 한 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죄가 되는 맹세를 금지한 것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는데 이는 맹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즉 결혼을 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법정에 설 때는 맹세를 할 수가 있지만, 불필요한 경우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박한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시켰습니다.

2. 복수 문제

옛날의 형법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형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은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는 복수를 불러 일으킵니다. 만일 갑이 을을 죽였다고 하면 을의 자녀가 갑에게 복수를 하고 다시 갑의 자녀가 을의 자녀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이지 계속되면 끝없는 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영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복수를 하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3:39)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뺨을 치는 자에게 이쪽도 치라고

성경 말씀 중 가장 양심의 가책을 받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대 여섯 번은 거절을 합니다. 당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결재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결재서류 중에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단,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 대인 관계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5:43)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만이 이웃입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멀리 살아도 유대인이면 이웃이고 가까이 살아도 이방인이면 원수입니다. 그들은 둘로 나누어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받게 될텐데 그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

온전하라는 말이 결론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야

- ② 남북기본합의서 중 상대방의 체제 존중, 상대방 내부 불간섭, 상대방 비방 중지, 상대방 파괴, 전복 행위 중지 등 불이행
- ③ 실적보다는 정치 선전으로 회담 지연
- ④ 남북 핵 상호 사찰 및 특별 사찰 거부

⑤ 과거 주장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독소 조항들을 다시 들고 나와 합의할 것을 고집(예: "통일에 배치되는 법적, 제도적 장애 제거"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포(公布)" "핵우산 제공을 받기 위한 타국과의 조약 체결 불가")

⑥ 정치 협상 회의를 목적으로 한 통일을 원하는 민주 인사의 자유 거래 등 정치 행사 위주의 교류를 앞세우며 이산가족 고향 방문, 종교 교류 등에 대해서는 특히 적극적으로 반대

III. 북한 선교의 환경과 제약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4조는 한마디로 북한 종교 정책의 역설과 궁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종교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종교를 탄압해 왔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은 김일성 권위의 신성과 절대성, 그의 주체사상의 유일화, 신념화를 생명으로 한 독특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내적으로는 종교, 학습, 논설, 문학, 영화, 노래 등 가능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인민들에게 꾸준히 반종교 선전을 강화해야 체제 유지가 가능한 입장이면서도, 남쪽과 국제 사회를 향해서는 "북한땅에도 교회와 사찰이 있고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있다."는 또다른 선전을 해야만 새로운 국제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 최근에 와서 김일

● '92 총헌 북한선교세미나 ●

제2강의

남북 대화와 북한 선교(2)

최문헌 원장(통일연수원 원장)

- 제1강의 :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이원설 교육부 교육심의회 회장)
- 제2강의 : 남북 대화와 북한 선교
- 제3강의 :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성은 "종교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 통치배들이 나쁘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현재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서 누구보다도 종교를 잘 역이용하고 있는 그의 말장난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소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종교 문제에 관한 한 북한 사회는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먼저 종교가 사람과 사회에 엄청난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북한의 이른바 <반종교 선전>의 논리를 몇 가지 요약해본다.

①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이 인민을 착취하며 기만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의식, 혁명적 투쟁 정신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

② 미국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조선 침략의 앞잡이로 내세웠고 간첩 노릇을 하게 하였다.

③ 반동적 목사들은 인민이 똑똑해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우리당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이상의 가장 흔한 <반종교 선전>의 논리들은 기본적으로 계급혁명 고수, 미국에 대한 증오심 고취, 그리고 반동 세력 제거의 명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북한 당국은 동구 공산국가들의 붕괴 이후 외교적 고립 탈

피의 필요 때문에 바깥 세계를 향해 위장된 종교 단체를 앞세워 극히 통제된 종교 행위를 표출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민들에 대한 <반종교 선전>은 그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는 그들이 밖으로부터 침습해 들어오는 사상(복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더러운 병폐")과 "장차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북한 내부의 "반동"을 경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에는 중앙 종교 조직으로 조선기독교연맹(위원장 : 강영섭),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 박대호), 조선천주교인협회(협회장 : 정재철),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위원장 : 정재철), 종교협의회(위원장 : 정진혁) 등이 있다. 이 단체들은 조선노동당의 감독, 지도를 받는 정치 조직으로서, 주로 남한 및 국제 종교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당 정책의 선전 등을 수행하며 그 간부들도 대부분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없고 신분상 일종의 종교 담당 공무원들이다.

북한의 출판물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에 의하면, 이들 단체들이 남쪽을 향해 "종교 교리의 허황성을 깨닫게 하고, 종교를 이용하려는 내의 원수들의 간계를 짓부수며, 남조선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야 한다."는 등 철저한 반종교논리의 임무를 띠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일부 해외 동

포 종교 지도자들 및 국내 종교 단체들이 북한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을 갖고 북한과 제3국에서 북음세미나, 공동예배 등 각종 회합을 성사시킨 바 있으나, 북한 중앙 종교 조직들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기쁨이 감도는 은혜로운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는 그래도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더 이상 종교의 이름 밑에 남북 동포들을 실망시키는 '정치구판'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라도...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이상 금년 5월말 현재 국내 종교계에서 선교(포교) 방북, 북한 신도 초청, 제3국에서의 북한 종교인 접촉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것은 81조이다. 이 중에서 정부는 종교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11조를 불허 조치하고 70조를 승인하였으나 이 중에서 북한측이 동의하여 성사된 것은 18조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사된 것 중에서도 제3국에서의 학술회의 참석 및 업무 협의를 위한 접촉이 대부분이며(16조) 다만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 KNCC 권호경 총무 두 사람만이 북한 방문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을 비롯하여 체육, 문화, 언론 등의 분야에

서 남북한을 합법적으로 왕래한 인원이 1,098명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종교인의 남북왕래의 문은 아직도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사람들이 왜 선택적으로 남한 종교인을 만나려고 하는지를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V. 결론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는 금년 4월 2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종교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역사적 강연을 한 바 있다. 그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선과 미국은 타고난 원수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현재의 남북의 좁은 통로를 되도록 넓혀 나가며 의심과 경계의 거북한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한 뜻'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꾸준히 이끌어어나가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또 못거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최고의 선으로 통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고귀한 선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속시원하게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오늘날도 가슴 답답하게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믿는 것이다. (계속)

장로칼럼

그리스도인의 삶



강모용 장로 (유치부 부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농부이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씨를 뿌리며 심는다. 오직 미래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 어느 농부는 소망의 생명력 있는 씨앗을 심는가 하면, 어느 농부는 생명력 없는 쪽정이 씨앗을 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소망의 생명력 있는 씨앗을 뿌리며 심고 사는 지혜있는 농부임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은 심는 대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만약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봄직하다.

실지로 지혜있는 농부는 그의 밭에 생명력있는 쪽정이를 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는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현실이 제아무리 정의보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일지라도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복음을 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없이 심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게다가 오늘의 현대인들은 성공지향적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느 젊은이는 데이트 할 시간조차 없이 결혼 문제도 미루고 일하며, 어느 직장인은 6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주말에야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조차 있다 한다.

이렇게 육체적 피곤을 극복하면서까지 자신의 성공 목적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

지 짚어봐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는 지혜있는 농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씨를 뿌리고 심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성실한 농부는 날씨가 가물지 혹은 장마들지에 대해서는 무심한 채, 그저 부지런히 심는 것에만 온 심혈을 기울인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

더욱이 요즘 우리 총현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귀한 때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의와 그리스도의 소망의 씨앗을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심는 참 성공자가 되길 바란다.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12:3)

다음호 칼럼은 최대원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꽃동네!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때론 꽃을 사러오겠다며 위치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는, 정말 꽃동네란 이름에서 화훼농장같이 여러 가지 꽃을 가꾸는 곳이 아닌가 하는 연상도 되어진다.

과연 꽃동네는 무슨 꽃을 재배하는 곳일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에 위치한 이곳을 사랑부 연중 행사의 하나인 특수기관 견학의 계획에 따라 7월 2일 방문하게 되었다.

집에서 출발할 때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내려 갈까말까 하는 망설임 속에 교회로 향했다.

출발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지체된 10시에 서울을 출발, 중부고속도로를 달려 진천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목적지인 꽃동네에 12시 30분경에 도착하였다.

'애덕의 집'이라 이름 붙여진 곳으로 들어가 도착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간 점심을 먹은 후 꽃동네를 소개하는 VTR을 시청하고 심신장애자 요양원과 구원의 집이라고도 하는 노인 요양원을 돌아보았다.

들어가는 입구마다, 땅과 복도

등 여러곳에 '언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가끔 자가용을 타고 와서 꽃동네 입구에 부모를 내려 놓

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꾸고 꽃피우며 열매맺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배하는 꽃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한 눈에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불편한 몸으로 자신보다 더 불편한 사람을 돌보며 도와주는 모습, 두 팔을 쓰지 못해도 발로 밥을 먹으며 전화를 받고 수를 놓는 모습, 흔들리는 팔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모습, 해골과 같이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아 침대에 누워 죽음을 평화롭게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함이 넘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길가에서, 다리 밑에서 언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밥을 언어다가 먹여주며 사랑을 실천하던 최귀동 할아버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아보리라 다짐했던 오운진 신부님. 하나님



김국중 집사(사랑부 교사)

꽃동네를 다녀와서

독자의 글

고 도망가버리는 일도 있다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버려져 의지할 곳 없고 언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겨두워 하늘 나라에 가까지 보호하

성·시·목·상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와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성전에 숨기시고
그의 처소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리라.

(시편 27편 4절 ~ 6절)

께서 이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모든 것을 바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할 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지금의 꽃동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체장애자 부서인 사랑부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곳에서 봉사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늘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오늘 꽃동네를 다녀와서 나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

삼 느낄 수 있었다. 대소변을 치우고 구더기 있는 상처를 치료하며 시체를 알콜로 씻기는 작업을, 이보다 더한 일도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실무자의 고백을 들으며 나의 부끄러움은 더욱 컸으며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네 이웃을 네 몸과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꽃동네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값없이 거저받은 사랑이 많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가꾸고 꽃피우며 나누기를 소원하면서 꽃동네를 위로하며 서울로 향했다.

● 구역예배 ● (1992. 8. 7)

시간 관리의 우선 순위

· 본문 : 누가복음 12장 16절 ~ 23절 · 찬송 : 412장, 326장
· 요절 :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누구나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에 수긍하면서 나름대로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내놓고보면, 낭비가 많고 또한 그러한 생활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릇된 습관의 반복을 끊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의 실패 원인과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각자의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1. 부자의 시간 관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철저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계획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평소에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상당히 계획성있는 생활을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해 쓸 물건을 쌓아 놓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모습은 인생에 대해 상당한 애착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시간 관리를 실패로 판정합니다. 그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부자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를 놓쳤습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절약하며 장래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아껴서 저축하고 장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였고, 물질의 주인

이 자신인 것과 그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오늘날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3.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와 같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 사용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바로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과 죄악의 일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는 잘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필요한 일 사이에서는 곧 방향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하나님은 옛날 동안 육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주말의 몇 시간을 자신에게 드리거나 생활하다가 남은 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자신에게 드리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정년 퇴직 후에 말년을 자신에게 드리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젊음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시간을 드러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남을 일들을 위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적용 및 기도

1.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2.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영원히 남을 일들을 위해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옵소서.